햄릿의 무대 위에 튀어나온 타우누스!

서큐슈교회 사사키 마사아키
니시큐슈교회 사사키 마사아키

어제 같은 교구에서 일하는 사카모토 선생님으로부터 두 장의 문서가 왔다. 하나는 교단 이사장에게 보낸 선생님 본인과 교회의 '교단 탈퇴 통지서' 사본으로, '교단이 일본복음동맹에 가입한 후 그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문제는 우리의 역사관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하나는 '교단의 방침과 나의 생각'이라는 문서로, 교단 사회문제위원회의 '국기, 국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선생님의 반론으로 이번 선생님의 결단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사카모토 선생님과 자세히 논의한 것은 아니고, 이번 선생님의 문서를 읽은 것만으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교단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한 선배 전도자가 교단 탈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저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사카모토 선생님이 교단 탈퇴를 결심해 주신다면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복음동맹(JEA)의 사회적 활동, 정치적 발언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확실히 좌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교단 제반 문서와 함께 보내온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의 '제 1 회 JEA '신교의 자유' 세미나 보고서'를 읽어보아도 매우 분명하게 좌파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 사회문제위원회의 몇 가지 문서를 읽어도 JEA 의 사고방식을 추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JEA 가 우리 사회문제위원회를 추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문제위원회의 문서에 대해
이 위원회에 속한 선생님들의 진지한 배움의 자세는 발표된 글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것이 교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단 기관지 등에 교단의 공식 견해처럼 기재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카모토 선생님이 '암담하다'고 한 것은 사회문제위원회의 의견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 마치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기관지 등에 실린 사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단의 각 기관, 예를 들어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혹은 주일학교부 등 각 부서가 교단의 기본 신앙에 입각한 태도를 따라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계몽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 이번 국기-국가 문제와 같이 아직 교단으로서의 기본적 태도나 공식적인 견해가 정해지지 않은 정치, 사회, 사상적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절차 없이 한 부서가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의견을 내는 것은 절차론적으로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교단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일반 신도들에게도 배포되는 기관지에 실렸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입장에 대하여

우리 교단은 정치단체도, 사회단체도, 사상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단체는 신앙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그것이 서로를 이어주는 요인이든, 갈라놓는 요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의 다른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입장, 사회적 사상, 인종, 혹은 문화, 직업, 직업, 취미, 취미, 취미에 이르기까지 어떤 요인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묶거나 갈라놓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단이 하나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을 취하고 하나의 견해를 정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각자의 실생활에 적응하는 단계에 따라 천차만별의 형태를 띤다. 그만큼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교단 안에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각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양심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기나 애국가에 대한 성명서처럼 정치적인 사상적 성명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의 요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단이 가입한 JEA 의 사고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JEA 가 이런 일에 적극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경계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혹은 개별 목사님들이 나는 그런 성명서를 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총리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
과연 이런 정치적, 사상적 발언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일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약하나마 이 점에 대해 조금 논의해 보고자 한다.

A. 계몽사상, 합리주의, 이신론, 종교적 상대주의
근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 계몽사상,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합리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회 발전,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사고방식이 성경 해석이나 신앙의 세계까지 파고들어 성경에 기록된 기사 중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어 천지창조나 기적 등은 부정되었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도 한없이 희석되어 왔습니다. 그런 흐름에 맞서서 일어난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들도 상당수가 극도로 이신론적이 되어,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병을 고쳐주신다는 등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옛 성경의 세계에 갇혀 버린 것이다.

계몽주의 사상으로 합리주의, 혹은 이신론적 사고의 세례를 받은 많은 교회들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도 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각각의 문화 안에서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복음 외의, 혹은 성경의 복음보다 앞선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종교적 상대성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의 큰 모임이 WCC 라고 하는 것인데, WCC 는 당연한 귀결로 선교의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땅, 각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무용론이 대두되었고, 교회는 선교 대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사회에 공헌하는 이른바 사회봉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리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해도 가난을 낳고 차별을 낳는 사회조직, 경제기구, 정치형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해를 낳았고, 교회는 그러한 가난, 차별 등 수많은 비인간성을 낳는 사회악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어 냈습니다.

WCC 에 속한 교회나 동조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사회악과 싸우는 과정에서 전도를 소홀히 했고, 당연히 그 결과 교인들을 점점 잃어가고 약화되어 갔다. 반면 이들 교회의 사회적 발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사회악과의 싸움을 위해 무장투쟁까지 용인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남미 반정부 게릴라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보낸 일본 교회도 있었다고 한다.

복음주의 진영의 움직임
한편,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 특히 흔히 '근본주의자'라고 놀림받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교회에 대한 위기감에서, 혹은 대항 의식이나 혐오감에서 생겨난 것으로, 처음에는 오로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세계선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회활동의 중요성에도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적대시하던 사회파 교회와도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생겨났다.

이런 가운데 복음주의 교회들의 세계적인 모임이 열렸는데, 바로 1907 년 로잔 회의가 그것이다. 이 회의는 이후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여러 곳에서 열리며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성경학자이자 선교학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분입니다. 이 회의 자체, 혹은 이 회의의 선언문, 그리고 이후 이 회의의 영향력에는 그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스톳은 당시 중남미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던 가톨릭 교회 내 사회파, '개방의 복음'에 큰 영향을 받은 '급진파'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을 반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잔 선언의 '개방의 복음의 냄새'를 싫어해서 서명하지 않은 대표들도 많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원래 스톳과 교류가 있었던지라, 순식간에 이 로잔 선언을 '성경대로' 받아들였다. 유명한 성서학자, 선교학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이 선언을 인용하고, 선전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쓰케와레이동(付和雷同)이 일본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복음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사회파라고 불리는 교회에 대한 대항 의식, 혹은 혐오감 때문에 사회 활동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에 대한 죄책감의 반동, 이른바 시계추 운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토트의 선교론과 그 문제점
스토트는 교회의 사명(mission), 즉 교회가 이 세상에 파견된 목적은 전도와 사회활동이라고 말한다. 전도와 사회활동은 마치 차축의 양쪽에 하나씩 있는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가 빠져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며,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이기 위해서는 전도와 사회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도 일변도로 달려온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모습을 갖추지 못한 결함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다.

스톳의 전도에 대한 정의도 매우 불가사의한 정의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의 사회활동이라는 개념에는 박애주의적인 구호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무력투쟁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악을 엄중히 규탄해 나가는 투쟁의 사회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활동을 박애주의적 구호활동과 사회악과의 싸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회가 사회활동을 하라고, 혹은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가르침과 명령은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나서는

사례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가르침도, 명령도, 예시도 없는 일을 교회의 사명이라는 중요한 것으로 치켜세워도 되는 것일까? 성령세례라는 것을 교회의 신학으로 삼는 것에 대해 성경에 명백한 가르침도 명령도 없다. 사례도 적다며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면 곧바로 몇 가지 반론이 나온다. 첫째, 그리스도도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금품을 주고, 사회악도 날카롭게 규탄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사명은 오로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즉 속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사셨고, 활동하셨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을 없애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 즉 구속적 사랑의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모습 혹은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하지 않은 사역을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치유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확실히 이것은 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도래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활동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어디까지나 구속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적 사랑의 실천을 위해 각지를 돌아다닐 때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사랑이라는 본성이 비참한 모습을 만나면 연민이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은 돕겠다는 행동을 낳는다. 즉, 그리스도의 사회 활동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부터 사랑이셨던 그리스도의 일반적 사랑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삶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즉 구속적 사랑의 실천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교회도 당연히 일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듯이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 양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활동은 교회의 사명,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그것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의 계명도 언급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아니냐는 논의입니다. 이 이웃사랑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사랑에 속하며 전 인류가 살아야 할 모습이지, 교회가 이 세상에 파견된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일반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애'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제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인해 생겨나고, 깨우쳐지고, 강화되는 사랑입니다. 이 형제애는 인종, 분화, 국경을 넘어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라고 노래하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형제애의 실천은 바울이 '은혜의 일'이라고 부르며 목숨을 걸고 실천한 대로다. 그는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체포, 감금, 죽음까지 각오하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그러나 바울도 교회도 당시 교회 밖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했던 굶주림, 헐벗음,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선활동으로서의 사회활동을 교회의 사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의의 싸움
다음 문제는 사회악에 대한 싸움, 정의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서한국과 우리 교단 사회문제위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의 대변자 혹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사회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발행된 <구원의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반론을 시도하여 여러 선생님들께 배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초림의 그리스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겸손한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산 자와 산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영광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맡겨졌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지만,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단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심판주이신 재림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착각했을 때, 교회는 잔인한 범죄자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도 배워야 한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언젠가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분명히 말했듯이, 교회 밖의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군다나 그 중 일부가 교회 전체를 대변하여 현재 사회의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자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사회문제위원회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든 납득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의견의 통일 같은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그런 시도를 하면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일부만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회문제위원회의 글을 통해 사카모토 선생님은 소외될 수 있는 많은 신도들을 대표해서 감히 스스로 소외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는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에 속한 자도 있었고, 꼭두각시 정권을 지지하는 사제계급도 있었고, 압제자 로마에 순종하여 세금을 걷는 자도 있었고, 로마 군대에 소속된 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가운데 살면서 정치적, 사상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의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논의에서 예언서 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이라는 것이 종종 거론되곤 합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의를 요구했고, 정치가들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정의' 집행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당시 이스라엘의 '신권 대행 정치' 속에서의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시대의 인류세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교회는 '신권 대행 정치' 속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이교도의 정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교도 위정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정의의 요구도, 항의와 규탄도, 비난도 아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또한 차별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을 것이다. 바울의 신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여성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노예제도까지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에 대해 오히려 깃발을 들고 항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 제도로 받아들이고 그 관습, 제도에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본 정신을 고양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교회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악에 대해 싸우지 말고 인내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의 표현이다.

선교론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교회나 교단이 그리스도나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정치적 사상적 통일된 견해를 내놓고, 성명서나 항의 문서를 공표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사명인 선교, 전도의 관점에서 유익할까요?

그런 행위는 필연적으로 복음 이외의 요소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문 너비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 이외의 인위적인 일로 생명에 이르는 문을 넓히거나 좁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문선명 총리나 사회문제위원회의 견해는 마치 구 사회당이 나올 법한 견해입니다. 현재 일본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미 포기해 버린 것 같은 의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되면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 의견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사회당 이탈의 물결에 기독교가 휩쓸릴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본의 좌파 운동이 기독교 운동의 한 축으로 탄생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좌파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중이 뭐라고 하든, 권력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단호하게 실행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스도도, 성경도 오히려 관여를 피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카이잘의 것은 카이잘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돈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권 대행 정치'의 달걀 껍질을 엉덩이에 붙인 채 구시대적 감각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로마의 주권을 병렬시켜 위아래를 비교하려 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권이 로마의 주권과 무관한 차원이 다른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맺음말
저는 사회문제위원회의 글이 실린 '어셈블리지'는 목회적 배려로 신도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동역자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카모토 선생님이 암담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카모토 선생님이 꼭 교단에 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이 사회문제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교단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분들의 그런 의견이 교단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혹은 대다수의 의견이라도)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물론 정치적 사상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특정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를 자기 손으로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범죄의 피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정의'를 자기 손에 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역할이 아닌 곳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마치 햄릿의 무대에서 갑자기 황혼의 학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다. 튀어나온 말이 진지할수록 희극이 되고, 비극이 된다.

*** Translated with 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